

#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김자숙<sup>1</sup>, 박아영<sup>2</sup>, 김종혁<sup>3\*</sup>

<sup>1</sup>군산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sup>2</sup>광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up>3</sup>중원대학교 뷰티케어학과 조교수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Impulse Buying Tendency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

Ja-Sook Kim<sup>1</sup>, A-Young Park<sup>2</sup>, Jong-Hyuck Kim<sup>3\*</sup>

<sup>1</sup>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Nursing, Kun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sup>3</sup>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Beauty Care, Ju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광주광역시와 J시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45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3.0을 활용하여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의 3단계 검증절차에 의거하여 매개효과 다중회귀분석과 Sobel test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첫째, 학업스트레스가 충동구매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자기통제력은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Sobel test를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z=-2.69, p<.001$ ).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자기통제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과·비교과 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 충동구매 경향성, 간호대학생, 매개효과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ai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impulse buying tendency.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one nursing university student located in Gwangju and J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145 nursing university student. The SPSS WIN 23.0 version was used with Sobel test and Baron and Kenny's mediating effect.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re was a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on academic stress and impulse buying tendency. First, academic stress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impulse buying tendency. Second, Self-control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impulse buying tendency( $z=-2.69, p<.001$ ). To reduce the impulse buying tendency among nursing university stud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 non-education interventions that promotion self-control in addition to decreasing academic stress.

**Key Words** : Academic stress, Self-control, Impulse buying tendency, Nursing university student,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Jong-Hyuck Kim(jhkim4170@hanmail.net)

Received October 6, 2023

Revised October 17, 2023

Accepted October 20, 2023

Published October 28, 2023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대학을 좌우하는 것처럼 간호학과 학업성적이 앞으로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 및 학업성적에 대한 민감도가 커서[1]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과업 특성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 진로 및 취업준비, 대학생활 적응과 직업선택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령대에 속한다[2-4].

간호대학생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학을 접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임상실습이나 국가시험 합격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높은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서[5]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되지 못하게 되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불안과 같은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6]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자기통제력은 일상적인 반응이 바람직하지 못할 때 의식적으로 억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7], 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해 즉각적인 행동이나 욕구를 자제하는 것이다[8].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여 중독 등 다양한 일탈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9], 자기통제력이 높을 경우는 순간적인 충동을 지연시켜 폭식, 알코올 남용, 범죄와 일탈 행동에서 충동성이 감소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났다[10]. 또한 선행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의 상실은 충동구매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11].

충동구매 경향성의 적절한 빈도는 기분을 고양 시켜 유쾌함과 만족감의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큰 피해를 주진 않는다[12]. 그러나 만성적으로 지속된 충동구매 경향성은 자기조절의 약화를 초래하여 결국 심리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독 행동중 하나인, 쇼핑중독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위험행동과 연관성이 있다 [13-15].

간호대학생은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미래의 의료인으로 자기통제력 결여로 야기될 수 있는 일탈 행동 하나인 충동구매 경향성이 습관성을 갖게 되어 심각한 문제를 초래시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이 충동구매 경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충동구매 경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의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을 감소시키고 자기통제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대학과 간호대학의 교과·비교과 교육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첫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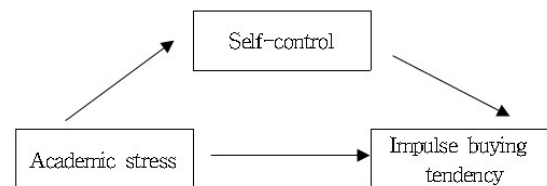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2.2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J시 두 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표본 크기는 G\*Power 3.1.2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최소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 독립변수 7개를 활용했을 때 표본 수가 130명이었다. 탈락률 약 15%를 고려하여 총 150명의 대상자를 모집하였고 그중 불성실한 답변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45부(96.7%)를 최종 분

석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학업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Schaufeli et al.[16]이 개발하고 Sin[17]이 번안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냉소주의 4문항, 정서소진 5문항, 효능감 감소 6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역문항은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소 15점에서 최고 7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in[17]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85이었다.

### 2.3.2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Tangney et al.[18]이 개발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를 Jo[1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역문항은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고 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77이었다.

### 2.3.3 충동구매 경향성

충동구매 경향성은 Yang & Lee[20]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정적 기분회피형 6문항, 주변 권유형 6문항, 이미지 일치형 6문항, 비계획형 6문항, 긍정적 기분 유지형 4문항, 기호 관여형 4문항, 제품 속성 관여형 6문항의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1점에서 '매우 일치한다', 6점으로 역문항은 역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점수 범위는 최소 38점에서 최고 22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구매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값이 .92이었다.

## 2.4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자료는 광주광역시와 J시 두 개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수집하였다. 간호대학의 최고 관리자에게 허락을 받고 대상

자에게 지면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서면동의를 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만으로 활용되며,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설문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절할 수 있음을 밝혔다. 설문 문항의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로 응답자가 직접 기록하였다.

## 2.5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3.0 version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p < .05$ )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정도는 최소값,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정도의 차이분석은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heffé test로 검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다섯째,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는 Baron과 Kenny[21]가 제시한 3단계 검증절차에 따라 매개효과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또한 Sobel test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J시 두 개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인구학적, 사회적, 환경적,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할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0세 미만 69명(47.6%), 20세 이상 76명(52.4%), 평균 연령은  $20.44 \pm 3.38$ 세, 성별에서는 여성이 120명(82.8%), 남성 25명(17.2%)이었다. 종교는 있다 46명(31.7%), 없다 99명(68.3%)이었다. 한달에 사용하는 용돈은 40만원 미만 74명(51.0%), 40만원 이상 71명(49.0%), 평균 용돈은  $40.76 \pm 24.56$ 만원, 한달에 물건을 사는 횟수는 8회 미만 92명(63.4%), 8회 이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y	N(%) or M±SD
Age (year)	<20	69(47.6)
	≥20	76(52.4)
		20.44±3.38(year)
Allowance (month)	<40	74(51.0)
	≥40	71(49.0)
		40.76±24.56(10,000₩)
Number of purchase (month)	<8	92(63.4)
	≥8	53(36.6)
		7.66±7.31(time)
Gender	Female	120(82.8)
	Male	25(17.2)
Religion	Yes	46(31.7)
	No	99(68.3)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78(53.8)
	Moderate	62(42.8)
	Dissatisfaction	5(3.4)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58(40.0)
	Moderate	73(50.3)
	Dissatisfaction	14(9.7)
Friendship satisfaction	Satisfaction	72(49.7)
	Moderate	66(45.5)
	Dissatisfaction	7(4.8)

53명(36.6%) 평균 구매횟수는 7.66±7.31회, 전공 만족도는 만족한다 78명(53.8%), 보통이다 62명(42.8%), 만족하지 못한다 5명(3.4%)이고, 대학 생활 만족도는 만족한다 58명(40.0%), 보통이다 73명(50.3%), 만족하지 못한다 14명(9.7%)이며 교우관계 만족도는 만족한다 72명(49.7%), 보통이다 66명(45.5%), 만족하지 못한다 7명(4.8%)이었다(Table 1).

### 3.2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정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는 최소 1.47점, 최대 4.33점, 평균 2.67±0.52점(범위: 1~5점)이었고, 자기통제력은 최소 1.54점, 최대 4.31점 평균 2.95±0.52점(범위: 1~5점)이었으며, 충동구매 경향성은 최소 1.18점, 최대 5.16점, 평균 2.77±0.71점(범위: 1~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academic stress, self-control and impulse buying tendency (N=145)

Variables	M±SD	Min	Max	Scale range
Academic stress	2.67±0.52	1.47	4.33	1~5
Self-control	2.95±0.52	1.54	4.31	1~5
Impulse buying tendency	2.77±0.71	1.18	5.16	1~6

###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F=28.44,  $p<.001$ ), 대학생활 만족도(F=11.50,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그룹이 '보통이다' 그룹과 '만족하지 못한다'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업스트레스 낮았고 '보통이다' 그룹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학업스트레스 낮았다.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그룹이 '보통이다' 그룹과 '만족하지 못한다' 그룹보다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학업스트레스가 낮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력은 전공 만족도(F=4.95,  $p=.008$ ), 대학생활 만족도(F=4.29,  $p=.015$ ), 교우관계 만족도(F=3.27,  $p=.04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전공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그룹이 '보통이다' 그룹보다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 그룹이 '만족하지 못한다'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기통제력이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충동구매 경향성은 한달 용돈( $t=-2.03$ ,  $p=.044$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impulse buying tendency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5)

Characteristics	Category	Impulse buying tendency	
		M±SD	t or F(p) Scheffe'
Age (year)	<20	2.80±0.72	.63(.532)
	≥20	2.73±0.70	
Allowance (month)	<40	2.65±0.67	-2.03(.044)
	≥40	2.89±0.73	
Number of purchase (month)	<8	2.73±0.67	-.82(.413)
	≥8	2.83±0.76	
Gender	Female	2.81±0.72	1.61(.110)
	Male	2.56±0.63	
Religion	Yes	2.69±0.77	-.87(.384)
	No	2.80±0.6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2.71±0.76	1.21(.303)
	Moderate	2.81±0.63	
	Dissatisfaction	3.17±0.66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2.78±0.66	.086(.918)
	Moderate	2.74±0.76	
	Dissatisfaction	2.82±0.64	
Friendship satisfaction	Satisfaction	2.73±0.54	.022(.978)
	Moderate	2.76±0.68	
	Dissatisfaction	2.78±0.75	

**3.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r=-.37, p<.001$ ),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 $r=-.38, p<.001$ )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감소하였으며, 자기통제력이 감소할수록 충동구매 경향성은 증가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r=.31, p<.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충동구매 경향성이 증가하였다(Table 4).

**3.5 대상자의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하여 Baron과 Kenny[21]의 3단계 절차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에 Durbin-Waston값으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과 분산,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은 팽창요인(VIF)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Durbin-Waston값은 2.117로 자기상관성이 없는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VIF는 1.159로 1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은 없어 회귀분석모형에 적합하였다. 1단계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부적영향이 나타났으며( $\beta=-.37, p<.001$ ), 학업스트레스에 의한 설명력은 13.1%였다( $F=22.67, p<.001$ ). 2

**Table 4. Correlation among main variables** (N=145)

Variables	Academic stress	Self-control	Impulse buying tendency
	r (p)	r (p)	r (p)
Academic stress	1	-.37(<.001)	.31(<.001)
Self-control		1	-.38(<.001)
Impulse buying tendency			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between the academic stress and impulse buying tendency** (N=145)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eta$	t(p)	Adjusted R <sup>2</sup>	F(p)
1	Academic Stress	Self-Control	-.37	-4.76 (<.001)	.131	22.67 (<.001)
2	Academic Stress	Impulse Buying Tendency	.31	3.86 (<.001)	.088	14.89 (<.001)
3	Academic Stress	Impulse Buying Tendency	.19	2.36 (.020)	.164	15.15 (<.001)
	Self-Control		-.31	-3.75 (<.001)		
Sobel test z=-2.69, p<.001						

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는 충동구매 경향성에 유의한 정적영향이 나타났으며( $\beta=.31, p<.001$ ), 설명력은 8.8%였다( $F=14.89, p<.001$ ). 3단계에서 학업스트레스는 충동구매 경향성( $\beta=.19, p=.020$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영향, 자기통제력은 충동구매 경향성( $\beta=-.31, p<.001$ )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에 의한 설명력은 16.4%였다( $F=15.15, p<.001$ ).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2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충동구매 경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3단계에서는 자기통제력은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 하였다. Sobel test를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z=-2.69, p<.001$ ).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을 규명하고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67 \pm 0.52$ 점으로 Hong & Kim[22]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83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특이적인 외생변수 영향요인을 제거하고자 임상실습이나 취업관련된 학업스트레스 요인을 적게 경험한 임상실습 전 단계인(pre-clinic) 2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관계로 간호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간호대학생은 학년이 진급될수록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 실습을 경험하고 간호사 면허인 국가고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간호학의 학문적 깊이와 배우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가 증가된 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배울 수 있는 다변화된 교육과정의 필요성 현재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스트레스는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 전공 만족도와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학과 교수

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공교과목의 교육과정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은 5점 만점에  $2.95 \pm 0.52$ 점으로 전체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23]의  $2.48 \pm 0.42$ 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통제력은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와 교우관계 만족도 따라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필요 역량인 자기통제력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전공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와 교우관계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hin[24]의 연구와 Kim[23]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은 진로준비 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바 예비 의료인으로서 간호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통제력은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판단된바 이러한 자기통제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적용 시 간호대학생의 학년별 상이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충동구매 경향성은 6점 만점의  $2.77 \pm 0.71$ 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충동구매 경향성은 한달 용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경향성을 보면 휴일로 인한 정규 수업 보강이나 기타 대학 프로그램 진행 시 아르바이트로 인하여 보강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가계에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구매하고 싶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학생활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충동구매 경향성이 조절되지 않으면 대학생활과 전공에 대한 학습활동보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제활동에 치중하게 되면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정서적인 흥미는 계속적으로 감소된다. Youn과 Fabar[25]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내향적일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고, 높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기분 회피형 충동구매 경향성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의 상관성에서 대상자의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기통제력은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의 관계에

서 부분매개효과, 즉 학업스트레스는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고 자기통제력은 충동구매 경향성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Seol & Lee[26]의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에서도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을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충동구매 경향성과 사이버불링 경향성 역시 습관적인 증독증상을 보일 수 있는 변수로서 학업스트레스와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나타내 본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에서 자기통제력은 부분매개효과가 있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자기통제력을 증가되면 충동구매 경향성은 감소되어 간호대학생의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는 교양 교과목보다는 전공교과목이 주는 과중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발생되므로 저학년 교양 교과목에서 전공지식에 대한 선수학습의 개념으로 전공지식을 반영한 융합적 교양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다변화된 사회적 환경에 맞게 서비스러닝과 리빙랩처럼 다양한 학습방법과 학습환경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사회봉사를 하면서 전공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교내와 임상실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리빙랩 개념으로 확장된 실습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학습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되면 학업만족도는 높아지고 학업스트레스는 감소되면서 자기통제력을 증가될 것이다. 자기통제력이 증가되면 간호대학생 스스로 전공교과목에 대한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학업스트레스가 감소되어 충동구매 경향성 또한 감소할 것이다. 현재 간호학과는 학기제 수업과 실습의 집중학기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전공을 졸업하고 오거나 다변화된 대학의 입시 전형으로 인하여 자기 다른 특성의 학생들이 간호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는 학생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학기제 같은 대상자 중심의 학기제도가 현실점에서 대두되고 있다. 대학은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 LMS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대면수업과 함께 동영상 수업을 활용하여 간호대학생이 예습과 복습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간호대학생의 자기통제력은 상승되고 학업능력 부진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는 감소 될 것이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 간호사 국가고시 교과목은 미국간호사 면허 시험보다 과목 수

가 많아서 학년이 진급할수록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감이 과중되고 있어 간호사 국가고시를 미국간호사 면허처럼 유사한 교과목은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간호사 국가고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모색되어야 한다. 자기통제력을 고취하기 위한 마음챙김 명상 같은 심신작용 프로그램을 비교과목이나 교양교과목으로 확대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나 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대학과 간호대학의 다변화된 교육과정 개선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감소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자기통제력은 증가되면서 습관성을 형성할 수 있는 충동구매 경향성은 감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된다. 추후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 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자기통제력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며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2022년 3월 24일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광주광역시와 J시 두 개의 간호대학생 145명을 편의표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versio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과 충동구매 경향성은 음의 상관성,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자기통제력은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을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대학과 간호대학의 교과·비교과 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 하였고 전체적인 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으며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을 감소하기 위한 대학과 간호대학의 다양한 교과·비교과

교육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측정을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과 다른 전공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충동구매 경향성을 비교 분석하여 대학생의 소비문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Y. J. Son Y. A. Song & E. Y. Choi.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depr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8(4), 345-351.
- [2] S. H. Lee & S. J. Kim. (2012).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depression and self 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6(3), 453-464.  
DOI : 10.5932/JKPHN.2012.26.3.453
- [3] D. Sarokhani A. Delpisheh Y. Veisani M. T. Sarokhani R. E. Manesh & K. Sayehmiri. (2013). Prevalence of depress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study.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1-7.  
DOI : 10.1155/2013/373857
- [4] Statistics Korea. (2017).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ejeon: Statistics Korea.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8/6/2/index.board?bmode=read&aSeq=351216](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8/6/2/index.board?bmode=read&aSeq=351216)
- [5] M. H. Lee & M. S. Park. (2014).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863-872.  
DOI : 10.5977
- [6] H. J. Choi & E. J. Lee. (2012).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2), 261-268.  
DOI : 10.7739/JKAFN.2012.19.2.261
- [7] M. Muraven & R. F. Baumeister. (2000). Self-regulation and depletion of limited resources: Does self-control resemble a muscle? *Psychological bulletin*, 126(2), 247-259.  
DOI : 10.1037/0033-2909.126.2.247.
- [8] D. Shaffer. (2000).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 (Fourth Edition)*. B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9] B. J. Costello B, J. Anderson & M. D. Stein. (2014). Self-control and adverse drinking consequences. *Deviant Behavior*, 35(12), 973-992.  
DOI : 10.1080/01639625.2014.901075
- [10] J. P. Tangney R. F. Baumeister & A. L. Boone.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DOI : 10.1111/j.0022-3506.2004.00263.x
- [11] A. Hausman. (2000). A multi-method investigation of consumer motivations in impulse buying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7(5), 403-426.  
DOI : 10.1108/07363760010341045
- [12] D. H. Silvera A. M Lavack & F. Kropp. (2008). Impulse buying: the role of affect, social influ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5(1), 23-33.  
DOI : 10.1108/07363760810845381
- [13] J. MacKillop J. D. Miller, E. Fortune J. Maples C. E. Lance W. K Campbellm & A. S Goodie. (2014).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impulsivity in relation to disordered gambling. *Experimental and Clinical Psychopharmacology*, 22(2), 176-185.  
DOI : 10.1037/a0035874
- [14] M. Zuckerman & D. M. Kuhlman. (2000). Personality and risk-taking: common bisocial factors. *Journal of Personality*, 68(8), 999-1029.  
DOI : 10.1111/1467-6494.00124
- [15] C. Amos G. R Holmes & W. C. Keneson. (2014). A meta-analysis of consumer impulse buying.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21(2), 86-97.  
DOI : 10.1016/j.jretconser.2013.11.004
- [16] W. B. Schaufeli I. M. Martinez A. M. Pinto M. Salanova & A. B. Bakker.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DOI : 10.1177/0022022102033005
- [17] D. W. Shin. (2002). Effects of the perceptions of



parents' expectations for the future careers of children on academic and 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Master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18] J. P. Tangney R. F. Baumeister & A. L. Boone. (2004).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2-322.  
DOI : 10.1111/j.0022-3506.2004.00263.x
- [19] H. I. Jo. (2011).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ived time perspective on self-regulated learning: self-control as a mediator.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8(2)*, 61-75.
- [20] Y. Yang & C. H. Lee. (2000). A study for the impulse buying tendency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1(2)*, 137-168.
- [21]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82. DOI : 10.1037//0022-3514.51.6.1173
- [22] H. S. Hong & H. Y. Kim. (2016). Effect of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resilience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6(2)*, 221-234.  
DOI : 10.35873/ajmahs.2016.6.2.024
- [23] M. S. Kim. (2021). The influence of self-control, social responsibility,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7(4)*, 248-258.
- [24] C. R. Shin. (2014). The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self-contro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high school girl students [master's thesis]. Nonsan: Konyang University, 1-42.
- [25] S. Youn & R. J. Faber. (2000). Impulse buying: its relation to personality traits and cu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7*, 179-185.  
<https://www.acrwebsite.org/volumes/8383/vol>

umes/v27/NA-27/full

- [26] P. R. Seol & S. H. Lee.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yberbullying tendency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self-control.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1)*, 576-585.  
DOI : 10.5392/JKCA.2021.21.11.576

김자숙(Ja-Sook, Kim)

[정회원]



- 2020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박사)
- 2021년 3월~현재 : 군산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모성간호학, 간호교육중재개발
- E-Mail : jskim-98@kunsan.ac.kr

박아영(A-Young, Park)

[정회원]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환자안전, 치매, 간호교육
- E-Mail : ayoung@gwangju.ac.kr

김종혁(Jong-Hyuck, Kim)

[정회원]



- 2001년 8월 : 한양대학교 생활스포츠학과(체육학석사)
- 2006년 8월 : 한양대학교 생활스포츠학과(체육학박사)
- 2015년 4월~현재 : 중원대학교 뷰티케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운동생리학, 운동처방, 건강관리, 운동재활, 교육중재개발
- E-Mail : jhkim4170@hanmail.net